

광주·전남 초등생

10년새 30%·40%↓

10만명선 무너졌다

전남, 감소 폭 전국 최고

올해 광주·전남지역 모두 초등학생 수가 10만명이 붕괴됐다. 1954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광주 초등학생 수는 9만6055명, 전남은 9만9206명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46만 8454명(광주 22만9570명, 전남 23만 8884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827명(3.9%)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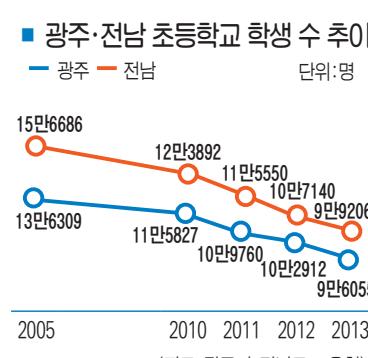
초등학생이 7.0%, 중학생 2.6%, 고등학생 0.4% 줄어 학교급이 낮을 수록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04년 16만 1187명에서 지난해 10만7140명, 올해 9만9206명으로 10년새 6만1981명(38.5%)이 줄어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커졌다. 같은 기간 광주는 13만 8670명에서 9만6055명으로 4만2615명(30.7%) 감소했다.

교원 수는 크게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04년 1만1388명에서 2010년 1만3129명, 올해 1만4303명으로 10년동안 25.6%(2915명) 늘었다.

반면, 전남은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교원 수도 함께 감소했다. 2004년 1만9295명에 달했던 전남지역 교원은 지난해 1만7703명, 올해 1만7722명으로 8.2%(1573명) 줄었다.

학교 수도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었다.

광주는 2004년 263개교에서 올해



308개교로 45곳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 수는 123개교에서 149개교로 26곳 증가했다. 중학교는 75개교에서 87개교로, 고등학교는 60개교에서 67개교로 10년새 12곳과 7곳이 새로 생겼다.

전남은 2004년 1000곳(1040개교)이 넘었지만 계속 줄어 지난해 924개교, 올해 911개교로 129개교(12.4%) 가 사라졌다. 특히 소규모학교인 분교의 폐교가 심각했다. 분교는 2004년 183곳에 달했지만 98곳이 줄어 올해 85곳만 남았다. 목포 유달초 올도 분교와 신안 흥선초 화태분교는 학교는 있지만 학생 수가 단 1명도 없어 휴교 중이다. 또 여수 초도초 손죽분교 등 10곳은 학생이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6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원은 1000여명 줄고

기간제교사는 3000여명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교생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 인성고 학생들이 4일 남구 송하동 인성고 대강당에서 남구보건소 직원들의 안내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년 시교육청 교직원 해외 연수

‘이석기 여행사’ 선정 배경에 관심

〈서울 업체 ‘길벗투어’〉

시교육청 “연수단 추천받아 결정…문제없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북유럽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일부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길벗투어’에 맡긴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관내 일선 학교 교사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27명이 선진형 교육정책 탐방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필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을 11일간 놀러보는 데 총 8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연수 참가자들이 부담했다.

연수단은 여행업체로 서울지역 여행사인 길벗투어를 선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업체 선정은 장흥국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연수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시 북유럽 연수는 교육국장이었

던 정병석씨가 단장을 맡은 연수단이 길벗투어를 당당업체로 선정했다.

길벗투어는 최근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업체로 알려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연수단당업체로 선정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길벗투어는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로 국정원이 주목하는 곳이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장흥국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선거대행업체를 맡겼던 곳으로, 이와 관련해 장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었다.

길벗투어는 교육연수전문, 공무국 외연수, 금강산·백두산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 회사가 이 의원측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 여행사를 광주시교육청이 담당업체로 선정한 것과 길벗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주시교육청이 고객사로 올라 있는 것을 두고 지역 교육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

이다.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는 그 지역 여행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히 지역연고가 있는 업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연수를 맡은 것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길벗투어가 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를 담당했던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연수단이업체를 추천받아 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북유럽 연수의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업체와 교육청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 추가로 연수 수행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우리 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몇점?

복지부, 평가 결과 포털 공개

이제 인터넷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평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의 ‘평가인증 알리미’ 사이트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교수법·건강·영양·안전 등 6개 영역의 7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충점과 영역별 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에만 인증한다.

7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5.7%인 2만8658곳이 평가 인증을 받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광주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첫 확장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